

A ñ
é ß

STARTER STORY · KOREAN · C2

물숨의 기록

물숨의 기록

어머니는 일흔둘이다. 제주 하도리에서 나고 자라 열일곱에 처음 물질을 배웠고, 지금까지 오십 년 넘게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해 왔다. 나는 재작년부터 어머니의 숨비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어머니가 더 이상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날을 위해서였다.

숨비소리는 해녀가 물 위로 올라와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내뿔을 때 나는 소리다. 휘파람 같기도 하고, 새소리 같기도 하다. 어릴 적 나는 그 소리로 어머니가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곤 했다. 바닷가에 서서 테왁 사이로 어머니의 머리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다가, 그 짧고 높은 소리를 듣고 나서야 다시 숨을 쉬었다.

어머니의 물질 수첩은 부엌 서랍 깊은 곳에 스무 권 넘게 쌓여 있었다. 물때와 수심, 그날 잡은 것들을 짧게 적어 둔 수첩이었다. 나는 그것을 몰래 옮겨 적기 시작했다. 내 기억과 어머니의 기록을 나란히 놓으면, 어머니가 살아온 시간의 결이 조금 더 선명해질 것 같았다.

1988년 7월 3일. 물때 한물. 수심 오 미터. 채취 소라 스물, 전복 세 마리. 숨비소리 짧고 힘참. 비고 없음.

그해 여름, 어머니는 서른네 살이었다. 마을에서 상군으로 불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상군은 가장 깊이, 가장 오래 물질할 수 있는 해녀를 뜻한다. 이모들 말로는, 그 시절 어머니의 숨비소리는 불턱 저 끝에서도 또렷하게 들렸다고 한다.

어머니는 물질을 배울 때 할머니에게서 한 가지 말을 들었다고 했다. “물숨을 먹으면 끝이여.” 물숨이란 물속에서 참지 못하고 마셔 버리는 마지막 숨을 뜻한다. 그 숨을 먹으면 다시는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어머니는 평생 이 말을 몸에 새기고 물에 들어갔다고 했다.

재작년 겨울, 어머니는 정기 검진에서 폐에 물이 조금씩 고이는 증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의사는 오랜 잠수로 인한 것이라며, 이제는 깊이 들어가는 일을 줄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물옷을 챙겨 입었다.

“의사가 바다에 들어가 봤단디.” 어머니는 그렇게만 말했다.

2023년 9월 11일. 물때 일곱물. 수심 삼 미터. 채취 소리 다섯, 성게 소량. 숨비 소리 짧고 낮음. 비고, 평소보다 자주 씬.

같은 해 시월,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물질을 녹음기를 들고 지켜보았다. 바람이 없는 날이었는데도 어머니는 세 번째 숨비소리부터 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녹음기를 왼 손에 힘을 주며, 다음 소리가 들리기까지의 시간을 세고 있었다. 평소보다 배는 길게 느껴졌다.

그날 어머니는 예정보다 이르게 물에서 나왔다. 테왁을 밀며 걸어오는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렸다. 나는 달려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나를 나무랐다. “뭘 그렇게 놀란 얼굴을 허냐. 나 아직 물숨 안 먹었져.” 그 말을 하면서도 어머니는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다.

2023년 10월 2일. 물때 여덟물. 수심 사 미터. 채취 없음. 숨비소리 세 번, 마지막 소리 흔들림. 비고, 예정보다 이르게 상군 귀환.

나는 그날 녹음한 파일을 여러 번 다시 들었다. 세 번째 숨비소리는 확실히 이전의 것들과 달랐다. 나는 그 사 초 남짓한 소리를 헤드폰으로 반복해 들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상군다운 숨비소리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자 손끝이 저려 왔다.

그해 겨울, 어머니는 조합에서 은퇴한 해녀로 등록되었다. 마을에서는 잔치처럼 작은 모임을 열어 주었고,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이제 좀 쉬시라고 덕담을 건넸다. 어머니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지만, 나는 그 웃음이 순순히 받아들이는 웃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은퇴 후에도 어머니는 물옷을 옷장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걸어 두었다. 봄이 오자 어머니는 조합 몰래, 물때가 좋은 날을 골라 혼자 바다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말리는 대신 녹음기를 들고 따라나섰다. 말릴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어머니의 숨비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시 깨달았다.

2024년 4월 20일. 물때 세물. 수심 이 미터. 채취 보말 한 줌. 숨비소리 한 번. 비고, 조합원 아님, 혼자 나감.

그날 어머니가 낸 숨비소리는 하나뿐이었다. 짧고, 가늘고, 그러나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소리를 녹음하며 처음으로 울었다. 잘하고 있다는 안도인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예감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이 기록들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아직도 모른다. 어머니의 수첩과 내 녹음 파일을 나란히 정리하면서, 나는 물때표처럼 이 기록에도 언젠가 마지막 날짜가 적힐 것이라는 사실만은 알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나는 아마 그 옆에 이렇게 적을 것이다. 채취 없음. 숨비소리 없음.

요즘 나는 혼자 바닷가에 서 있을 때면, 나도 모르게 입술을 오므리고 짧게 바람을 내뿜어 본다. 소리는 나지 않는다. 그저 숨이 조금 빠져나갈 뿐이다. 그래도 나는 그 숨이, 언젠가 내가 물려받게 될 숨의 예행연습이라고 믿어 보기로 한다. ‘아직은, 물숨이 아니다.’

OQOU STARTER LIBRARY

This story is from oqou's free starter library, graded at C2 for Korean readers.

Read it interactively in the oqou app: tap any word for an instant translation, listen with natural narration, and carry your saved vocabulary into every story you read next.

oqou.app

[Download oqou on the App Store](#)

oqou •